



[산업]
삼성전자
더 똑똑해진 '뉴빅스비'
문맥 흐름까지 척척
04



Life

[마켓]
한국투자증권
거침없는 실적성장세
상반기 순이익 역대 최고
08



농촌에 활력을... 어린이에 희망을...

소외계층과 기쁨 나누고 행복 채우는 '같이'의 가치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NH농협카드

NH농협카드가 소외계층과 함께 기쁨은 나누고 행복을 채우는 '같이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소외계층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 특히 NH농협카드는 'NH농협카드 봉사단'을 구성해 지난 2013년부터 '나누는 기쁨, 행복한 동행'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복지관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불우이웃돕기 등 매월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NH농협카드가 봉사활동에 투입한 시간은 모두 1107시간(약 46일). 한 달 보름이 넘는다. 임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농업·농촌에 힘 보태기 실천

NH농협카드는 활력을 잃어가는 농업·농촌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지난 6월 NH농협카드 봉사단은 경기도 광주 시 남한산성면에 위치한 복숭아 농가를 찾아 일손부족으로 더디게 진행된 복숭아 봉지씰우기와 열매숙기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단의 손길로 많은 작업이 마무리 되자 농가주 강희원 씨는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농협직원들이 내 일처럼 적과와 봉지 씰우기를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며 "큰 짐을 덜어 낸 거 같아서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NH농협카드 봉사단은 지난 2004년부터 조리골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농번기마다 일손돕기에 나서고 있다. 올해 4월, NH농협카드 봉사단은 파주시 조리골에서 고구마, 고추, 오이, 가지 등을 심기 위해 밭고랑을 만들고 비닐을 씌우는 등 농가에 일손을 보탤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일손부족으로 시름하고 있는 농가에 직원들의 힘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했다"며 "영농철 농가가 겪고 있는 고충에 더욱 관심을 갖고 농촌일손돕기를 비롯해 다방면으로 농촌사랑을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난 2016년 NH농협카드는 NH농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함께하고 있다.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캠페인은 농업인과 도시민이 동반자 관계로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 하나의 마을'로 선정되는 마을은 고령자가 많이 살고 있어 세대 간 소통이 단절되거나 취약계층(조손, 장애우 가정 등)이 많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마을, 전통문화적 이야기거리(스토리텔링)가 풍부하거나 조용 경관이 수려하며 전통농법을 지켜가고 있는 자연부락 등이다.

이곳에서 명예이장으로 선정된 기업 CEO는 기업의 유·무형 자원과 보유역량을 마을에 적용시켜 마을의 숙원사업을 지원하고 마을 소득 창출을 할 수 있게 해 마을 활력화를 주도한다. 또, 명예주인으로 선정된 임직원들은 마을 농가



'또 하나의 마을' 자매결연 파주 조리골마을에서 NH농협카드 봉사단이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NH농협카드 봉사단이 후생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요리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NH농협카드는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 후생원을 지정봉사기관으로 선정하고 매월 시설 청소 및 석식 제공 등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NH농협카드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나눔소아암센터에서 나눔상자 지원기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지난 6월 NH농협카드 봉사단이 경기도 파주시 남한산성면에 위치한 복숭아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NH농협카드 봉사단' 구성 임직원 3분의 1 이상 참여

농촌마을과 자매결연 맺고 농번기마다 일손돕기 나서

다문화 교육 연구·운영비 지원 소아암 환자 위해 '나눔상자' 등 취약계층 어린이 위한 봉사 전개

1호와 1대1 결연을 통해 정기적·실질적인 마을 방문과 일손 돕기, 전화·서신교환, 마을 농산물 홍보 등을 맡아 운영한다.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도움도...
농업·농촌을 위한 사회공헌 외에도 NH농협카드는 취약계층 어린이를 보듬고 있다.

다문화 교육사업, 소아암 어린이후원, 다자녀 가정 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 먼저 NH농협카드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 서울 후생원을 지정봉사기관으로 선정하고 매월 시설 청소 및 석식 제공 등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NH농협카드는 설 명절을 맞아 후생원을 방문해 농산물과 성금을 전달하고 떡국을 대접했다. 지난 2016년 서울후생원과 NH농협카드봉사단이 자선냄비 모금활동을 실시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또한 NH농협카드는 소아암 어린이 후원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NH농협카드는 조형모세포 이식 수술이 확

정된 만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 및 이에 준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진단받은 소아청소년과 환자를 위한 이식준비물품(나눔상자)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백혈병 어린이재단에 5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NH농협카드에서 진행되는 문화가정 교육사업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켜주는 프로젝트가 계획·진행 중이다. 특히 NH농협카드가 후원하는 다에다문화학교는 후원금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과 심리안정 지원 활동을, 8월부터 10월에는 다문화 교육 연구와 기관운영비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동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 계층 지원과 자원 봉사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공헌 활동의 범위를 더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사진-NH농협카드